

# KIA 이명기, 부진 딛고 완벽한 반등세

‘디펜딩 챔피언’ 불구 시즌 4월까지 중위권 맴돌아  
이명기, 슬럼프 겪다 최근 맹타...공격 침범 거듭나

KIA 타이거즈 외야수 이명기(31)가 지난 4월의 부진을 딛고 완벽한 반등세로 돌아섰다. ‘디펜딩 챔피언’ KIA의 시즌 초반 출발은 썩 좋지 않다. 3월 개막 이후 4월까지 13승15패에 그치며 중위권으로 떨어졌다. 4월 한 달 간 성적만 따로 떼어서 들여다보면 9승12패로 승률은 더욱 떨어진다. 투수진도 투수진이지만(4월 평균자책점 5.55 최하위), 득점 루트 창출이 쉽지 않았다. 특히 리드오프를 비롯한 테이블 세터진이 부침을 겪었다. 4월 리드오프 타율 2할4푼5리(7위), 테이블세터진 타율 2할6푼4리(6위)에 그쳤다. 테이블세터진의 출루율도 신통치 않았다. 1번 타자 출루율이 2할8푼7리(9위), 2번 타자가 3할3푼7리(6위)였다. 부진의 중심에는 지난해

공격 침범 역할을 톡톡히 했던 이명기가 있었다. 개막 이후 3월 7경기에서 타율 3할2푼1리(28타수 9안타) 맹타를 휘둘렀던 이명기였다. 하지만 4월 들어서 타율 2할2푼9리(70타수 16안타) 출루율 2할8푼6리로 극심한 슬럼프에 빠지며 고개를 숙였다. 이후 출장 기회는 들쭉날쭉해졌다. 타순 역시 리드오프 자리가 아닌 타순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격 침범이 부진에 빠지자 팀 성적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명기는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 4월 말부터 조금씩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 10경기에서 타율 4할3푼2리(37타수 16안타) 5타점 8득점 2도루의 기록으로 맹타를 휘두르고 있다. 이 기간 30타 이상을 3차례 기록

하고 있고 최근 8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 중이기도 하다. 김기태 감독 역시 이명기가 살아나야 팀 타선도 활력이 넘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난 4월 광주 NC전을 앞두고 쇼타 코우조 타격코치와 함께 이명기의 기를 살리기 위해 옆에서 끊임없이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코칭스태프의 노력 속에서 공격 침범으로 다시금 거듭나고 있다. 이명기의 반등은 결국 KIA 타선의 반등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동안 1번 타순에서 2할1푼5리(79타수 17안타)로 부진했지만 9번 타순에서 타율 5할2푼6리(13안타)로 맹타를 휘두르고 있다. 슬럼프에서 완전히 회복돼 다시 1번 자리에 포진을 한다면 버나디나 안치홍, 최형우 등의 중심타선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 9번 타순에서 꾸준히 활약을 이어가더라도 상위 타선의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해줄 수 있다. 어느 자리에서든 공격 침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이명기다.



우승을 차지한 구례군 토지팀(좌)과 준우승을 한 고흥군 오마팀(우)이 여수시게이트볼협회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 전남동부 7개 시·군 게이트볼대회 ‘성료’

우승 구례 토지팀 · 준우승 고흥 오마팀 · 3위 광양우보 · 곡성삼기

제179회 전남동부 7개 시·군 게이트볼대회가 지난 4일 여수시게이트볼협회(회장 박종완)주최로 전남 경기장 인조잔디구장에서 열렸다. 이날 경기는 7개 시·군에서 48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예선전부터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본선에서 결승에 진출한 구례군

토지 팀과 고흥군 오마 팀이 접전 끝에 결국 구례군 토지 팀이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여수시게이트볼협회는 선수 입원의 편익을 위해 개회식을 생략하고 경기를 진행시켰고 박 회장은 시상식에서 “많은 선수 임원들이 여수시를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우승을 차지한 구례군 토지팀(좌)과 준우승을 한 고흥군 오마팀(우)이 여수시게이트볼협회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대회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보완하고 개선해 다음에 여수를 찾는 선수 임원들에게는 더욱 완벽한 모습으로 대회를 치르겠다”고 말하고 “우승 팀에게 축하와 준우승 팀에게도 격려와 아쉬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구례 토지 팀의 고문길 감독(구례협회장)은 우승 소감에서 “70대 여성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지만 농촌의 바쁜 농번기를 극복하고 꾸준한 연습의 성과다”며 “전남 7개 시·군에서 우승을 차지해 영광이라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회계 준우승에 그친 임성섭 감독(고흥군협회장)은 “우승 팀의 실력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며 “선수들의 부족한 기술을 다시 갈고 닦아 다음 대회를 기약한다”고 다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 ‘2년차 징크스’ 여기까지 박성현 “힘든 시간 잊었다”

올 시즌 부진 씻고 8번째 대회 만에 첫 승 신고

올 시즌 주춤했던 박성현(25·KEB하나은행)이 8번째 대회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2년차 징크스에 종지부를 찍었다. 박성현은 7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더플로노의 울드 아메리칸 골프클럽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볼런티어스 오브 아메리카 텍사스 클래식’에서 우승하며 시즌 첫 승과 함께 통산 3승째를 수확했다. 대회를 마치고 박성현은 “올 시즌 초반 두 차례나 컷 탈락하고 매우 실망스러웠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분이 좋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깨끗하게 잊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성현은 “첫 홀을 보기로 시작하면서 조금 어려웠는데 이후에 칩인 이글이 나오면서 경기가 풀리기 시작했다”며 “마지막 홀 칩샷도 굉장히 어려웠고 긴장을 많이 했는데 잘 쳤다는 생각이 했지만 빨리 들어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올 시즌 8번째 대회 만에 미수길 이 우승을 하며 결과적으로 작년보다 이른 시기에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시즌 초반 부진 탓에 우려됐던 2년차 징크스도 조기에 털고 앞으로 있을 대회에 가벼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게 됐다.

2년차 징크스에 대해 박성현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다”며 “나도 우승을 했으니 2년차 선수들이 부담 없이 플레이했으면 좋겠다”고 속내를 밝혔다. 이어 “시즌 시작하기 전에 올해 목표를 3승으로 잡았는데 텍사스 대회에 앞서 준비했던 것처럼 쇼트게임 시간을 늘리며 좋은 느낌을 확실히 가지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에서 36홀로 대회가 축소됐다. 이 같은 악조건에도 박성현은 불평을 하기보다 평정심을 유지하며 연습에 시간을 할애했다.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습은 확실히 도움이 됐다. 이번 대회 몇 차례 선보인 환상적인 쇼트게임은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최종일 2라운드에서 첫 홀부터 보기를 했지만 4번 홀(파5)에서 멋진 칩인 이글로 만회했다.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도 그린 밖에서 시도한 칩샷이 그대로 홀컵에 빨려 들어가며 2위와 격차를 벌리고 경기를 마칠 수 있었다. 박성현은 “첫 홀을 보기로 시작하면서 조금 어려웠는데 이후에 칩인 이글이 나오면서 경기가 풀리기 시작했다”며 “마지막 홀 칩샷도 굉장히 어려웠고 긴장을 많이 했는데 잘 쳤다는 생각이 했지만 빨리 들어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올 시즌 8번째 대회 만에 미수길 이 우승을 하며 결과적으로 작년보다 이른 시기에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시즌 초반 부진 탓에 우려됐던 2년차 징크스도 조기에 털고 앞으로 있을 대회에 가벼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게 됐다.

## ‘백전노장’ 케이힐 러시아월드컵 호주 축구대표팀 예비 명단 포함

팀 케이힐(38)이 2018 러시아 월드컵 호주 축구대표팀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베르트 판마르베이크 호주 월드컵 대표팀 감독은 7일 시드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장 공격수 케이힐과 신예 대니얼 이르자니(19세)를 포함한 32명의 예비 명단을 발표했다. 케이힐은 50골로 역대 호주 대표팀 최다골 보유자다. 그는 2006년 독일 월드컵부터 2014년 브라질 월드컵까지 3개 대회에 연속으로 출전하며 명성을 높였지만 최근 들어 출전 기회가 많이 줄었다. 발발 유스 출신의 케이힐은 2004년 에버튼으로 이적한 뒤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했다. 그는 에버튼에서 2004~2012년 정규리그 226경기에 출전해 56골을 기록했다. 케이힐은 2012년 에버튼을 떠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MLS)



뉴욕 레드 불스에 입단했다가 중국 프로무대에 진출해 상하이 선화, 항저우 그린타운에서 뛰었다. 케이힐은 지난해 12월 친정팀 밀월로 복귀했지만 10경기 동안 63분 밖에 출전하지 못했으며 골도 기록하지 못했다. 판마르베이크 감독은 케이힐이 큰 경기 경험이 많으며 이를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판마르베이크 감독은 “그는 8년명의 관중 앞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을 노련한 선수다”라고 말했다. 호주 축구협회는 몇 차례 평가전을 치른 뒤 다음달 4일 23명의 최종 로스터를 발표할 예정이다.

## 김시우, 사상 첫 골퍼 되나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2연패 도전...2연속 우승자 全無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제5의 메이저 대회’로 통하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선수는 1명도 없다. 지난해 챔피언 김시우(23·CJ대한통운)가 비지의 영역에 당당히 도전장을 던졌다. 8일(한국시간) PGA와 인터뷰에서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전년도 우승자들이 좋은 플레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그것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1974년 잭 니클라우스의 우승으로 막을 연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은 누구에게도 2연패를 허락하지 않았다. 니클라우스(3회)와 타이거 우즈, 데이비드 러브 3세, 프레드 커크(이상 2회) 등이 여러차례 우승을 경험했으나 연속 우승은 아니었다. 10일 개막하는 올해 대회에서 김시우가 1위를 차지하면 최초가 된다. 지난해 김시우는 이 대회에서 최종합계 10언더파 278타로 이언 플러(잉글랜드)와 루이스 우스투이



젠(남아공)을 3타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이 대회 역대 최연소이자 2011년 최경주에 이후 두 번째 한국인 우승자가 됐다. “타이를 방어와 컴백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김시우는 “3타 퍼트가 나쁘지 않아 자신감을 갖고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코스와 이 대회에서는 쇼트게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이 게임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대회에는 김시우와 강성훈(31), 김민휘(26), 안병훈(27·이상 CJ대한통운) 등 총 4명의 한국 국적 선수가 출전한다.